

論山新基里的支石墓

姜 仁 求

一、머 리 말

國立博物館의 「韓國支石墓研究」①가 一九六七年發表된 이후 百數十基의 支石墓가 계속 調査되였다. 八堂岫② 昭陽江岫③ 榮山江岫④ 등의 建設로 因한 水沒地區內에 分布한 支石墓들의 大規模調査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를 百數十基의 支石墓가운데서 上紫浦里 一四號⑤를 빼놓고는 確實하고 뚜렷한 副葬遺物이 發見된 일은 거의 類例를 찾을 수 없다. 그만큼 支石墓는 破壞攪亂되었을 뿐 아니라 完全한 것도 當初부터 遺物의 副葬이 아주 貧弱한 狀態이다. 그러나 支石墓는 우리나라만의 特徵있는 遺蹟으로 上代의 墓制중 가장 重要な 比重을 占하고 있기 때문에 歷史上 上古時代는 如前히 未解決의 章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여기에 紹介하고자 하는 遺蹟 遺物은 論山郡 新基里 支石墓群중의 一基이나 偶然히 發見되었고 또 그곳에서 望外의 一括遺物이 出土되어 이들 遺蹟의 稀貴한 資料를 追加하게 되었다.

以下 그 全貌를 記錄함과 동시에 약간의 小見을 添加하여 두고자 한다.

二、調査經緯 및 遺蹟의 位置

一九七三年 三月 八日에 忠淸南道 論山郡 陽村面 新基里 高岩部落 三四〇

— 三 韓基昌(當時三一才、農業)氏의 所有 밭에서 上石이 없는 支石墓의 上部構造인 石棺一基를 調査하였다. 石棺은 高岩部落에서 새마을事業으로 마을內 通用道路를 開設하다가 三月 四日에 發見하여 論山郡文化公報室에 申告하여 三月 七日에 文化財管理局에서 筆者에게 緊急調査하여 줄 것을 要請하여 와서 翌日 現地에 出張調査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高岩部落 三四〇番地에서 六·二五動亂 前에 金元龍博士가 支石墓 二基를 調査한 일이 있고⑥ 또, 一九六五年 一〇月에는 國立博物館의 尹武炳博士에 依하여 다시 支石墓 二基를 調査한 바 있다⑦. 이 部落에는 一七—二〇餘基의 支石墓가 비교적 넓은 範圍에 散在되어 있어 解放後부터 學界에 알려진 바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二次에 걸친 調査에도不拘하고 支石墓의 下部構造가 일찍부터 파괴되어 構造는 밝힐 수 있었으나 遺物은 一點도 얻은 바 없었기 때문에 이곳 支石墓群을 確實하게 밝힐 수 없었다. 今番은 비록 上石은 없어졌으나 石棺이 充分히 남아있고 그 속에서 나온 磨製石劍一點과 石鏃 一五點을 全部 收拾할 수 있어 前에 얻지 못한 成果를 올릴 수 있었음은 무척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支石墓가 所在한 新基里 高岩部落은 論山邑에서 大田으로 通하는 國道를 一三km쯤 가면 連山面所在地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南쪽으로 錦山郡 珍山面으로 가는 道路를 따라 一二km 가면 陽村面所在地인 仁川里에 到達하게 되는데 新基里는 여기서 다시 東南쪽으로 나 있는 山間道路로 三km 가면 高岩部落에 가게 된다. 新基里에는 북편으로 長仙川(論山川 上流)이 西北向으로 貫流하고 이로 因하여 形成된 沖積平野上에 位置하였다. 마을은 東쪽에 운주산, 西北쪽에는 채방산, 南·北쪽에도 이름모를 山이 海拔 二五〇—二八〇m 높이로 솟아 있어 마치 盆地形 臺地가 이루어져 있다.

高岩部落은 二〇餘戶의 農家가 비교적 密集되어 있고 今番 調査한 支石墓는 마을의 거의 한 북편에 位置하였다.

이곳의 地層은 現地表에서 三〇—四〇cm 아래까지 腐土層이고 그 아래는 礫石과 모래層인 生土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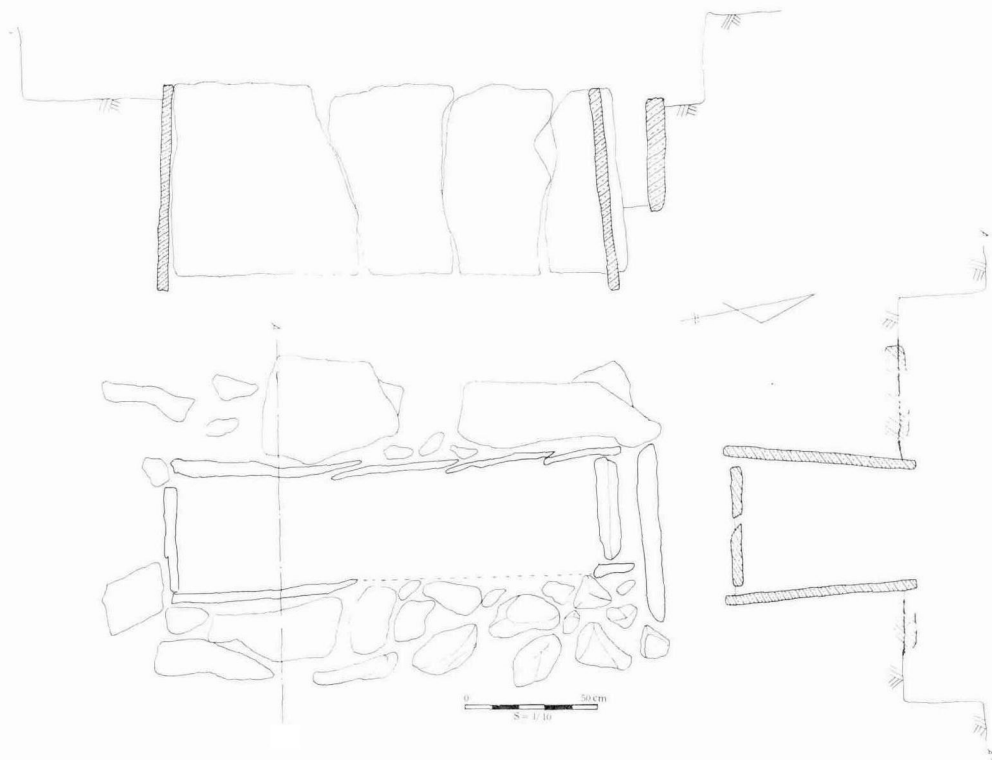


圖 1 新基里 支石墓 下部 石棺 平面圖, 斷面圖, 壁面圖

三、石棺의 構造와 支石墓의 形式

石棺의 上石은 마을 사람을 말에 의하면 前부터 없었다고 하나 그것이 位置한 곳이 골목길과 밭의 경계인 것을 보면 今番 道路를 넓히는 데 防害되기 때문에 파괴하여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確證할 방법이 없다.

石棺은 現地表下 四〇cm에 位置하였고 長軸을 거의 南北으로 取하였는데, 正화하는 一〇도 偏重하였다.

生土를 길이 二三〇cm, 폭 一八〇cm, 깊이 一一五cm 가량으로 土壙을 파고 그 中心에 石棺을 造營하였는데 壁石과 墳壁 사이는 頭大의 塊石으로 메꾸었다.

壁은 板狀의 自然石으로 築造하였는데 南·北의 短壁은 一枚로, 西쪽의 長壁은 四枚를 길이로 直立 相連하였고, 東쪽 長壁은 南側一枚石만 남아 있고 그 나머지 板石은 이미 빠내어 周邊에 흩어져 있으며 北壁과 接한 部分에만 殘片이 제자리에 남아 있다.

壁石의 크기는 南壁이 폭 四〇cm, 두께 四cm, 北壁이 폭 三九cm, 두께 四cm이고 西壁은 南쪽부터 각기 폭 六七cm, 四二cm, 三六cm, 二九cm이며 두께는 二·五—六cm이다. 東壁은 南쪽 큰돌이 폭 七〇cm, 두께 四cm, 北쪽 작은 돌 一七cm만이 남아 있다. 壁石의 뿌리는 바닥돌 밑으로 一〇cm정도 박혔고 다듬지 않은 狀態 그대로이다.

蓋石은 全部 除去되어 없어지고 크기 一一〇×八五×八cm되는 一枚만이 西壁 가까이에 放置되어 있다. 바닥돌 역시 같은 性質의 板石을 土層 위에 바로 깔았으나 一三가량만 남아 있다.

石棺의 크기는 南北길이 一六〇cm, 폭은 南쪽이(上) 四六cm, (下) 五六cm 北쪽이(上) 四〇cm, (下) 五〇cm로 上寬下窄形으로 되었다. 길이(石棺 高)는 七三cm로 支石墓의 下部構造로서는 깊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石棺의 壁石이 內傾한 것은 上面이 側面의 土壓에 依하여 안으로 기울어

진 것이 아니고 造營 當初 부터 壁石을 堅固하게 하기 爲한 配慮로 보여 지는데 前에 調査한 A·B號의 支石처럼 뿌리가 바닥에 깊이 박히지 않기 때문에 取하여진 措施인듯 하다.

이 石棺의 構造에서 하나 特異한 事實은, 北쪽 壁이 바깥쪽으로 一·二 cm 떨어져서 또 하나의 板石이 北壁과 나란히 直立되어 있는 것이다. 上面이 北壁 보다는 六 cm 낮게 박혀 있는데 깊이는 四〇 cm 정도였다. 北壁에 接한 東·西壁의 끝이 南壁과는 달리 바깥쪽으로 八 cm 가량 더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目的을 가진 空間을 意識적으로 만든 듯하다.

谷安里⑧에서는 槨內에 板石을 세워 別途의 空間을 만들기는 여가와는 달리 主槨안에 만들어진 칸막이인데 여기서는 槨밖에 만든 것이 서로 다르다. 支石墓에 있어서 槨尾에 이러한 施設을 한 것은 아직 발견된 바 없으나 石棺墓에서는 滿洲地方에서 더러 나타난 일이 있다. 예를 들면 吉林西團山子⑨의 石棺墓가 槨尾에 副室을 갖고 있는데 土器一點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 新基里에서는 아무런 副葬品도 發見치 못하였다. 따라서 이 副設空間의 用途가 副葬品用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幼兒用槨으로 보기에 도 너무 좁다. 혹시 二次葬用이 아니었는지 알 길이 없다.

石棺內에서는 磨製石劍一點과 石鏃一五點이 出土되었으나 筆者 등이 到着하기 前 마을사람들이 이미 任意 引出해 냈기 때문에 出土狀況이나 遺物の 配置狀態는 確實하지가 않다.

葬法은 分明치 않으나 槨幅이 東쪽 보다 西쪽이 넓고 槨外施設이 東쪽에 付設된 것을 보면 西枕이 確實하며 槨의 길이가 一六〇 cm나 되어 伸展葬하기에 充分하다. 그리고 石劍 石鏃이 多數 副葬된 것은 역시 男性을 埋葬한 것으로 推測할 수 있는 좋은 根據가 아닐까 생각된다⑩.

今番에 調査한 石棺은 그것이 地表下 四〇 cm 位置에 長壁이 四枚의 板石으로 되고 그 뿌리가 바닥 이하로 깊이 박히지 않았으며 長壁과 短壁의 接合部分이 ㄱ形의 樣式을 取함과 同時에 長·短壁의 두께에 있어서 別差異가 없을 뿐만 아니라 壁石 周邊에 一定한 넓이의 積石狀態를

갖고 있는 등 南方式支石墓가 갖는 여러 特徵을⑪ 나타내고 있어서 上石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南方式임이 分明하다. 그러나 尹炳燾博士님이 前에 調査한 A·B號는 北方式支石墓였다⑫. 그것들은 石棺이 地上위로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長支石과 短支石이 두께와 뿌리形態 그리고 結合樣式이 ㄱ形으로 되어 있어 北方式의 諸特徵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C號는 上石이 立體形塊石으로 되었고 石棺의 길이가 六尺 가량이며 높이가 坐高정도이며 上石아래에 있는 礫石層 등으로 미루어 보아 A·B와는 달리 南方式支石墓였을 가능성이 크다⑬.

이렇게 본다면 新基里支石墓群은 北方式和 南方式이 混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두 形式이 함께 存在하는 예는 全北 高敞郡 雅山面 梅山里에서도 發見되었는데⑭ 여기서는 丘陵上에 二十餘基가 分布되어 있는 가운데 北方式이 二基、그와 恰似한 石柱形支石이 있는 것 二基등 合四基가 있었는데 地上에 支石과 石柱形石을 받친 것은 現段階로서 北方式이라고 確實하게 斷定지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北方式和 南方式으로 大別한다면 北方式으로 分類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北方式이 數字上으로 적은 漢水以南 지역에서는 두 形式이 混在한 예는 별로 發見된 바 없으나 大同江과 載寧江流域에서는 두 곳에서 發見된 일 이 있다⑮.

梅山里的 北方式들도 丘陵上에서만 分布하고 있어 位置面에서 一段은 南方式과는 區分되고 있다.

介川郡 墨房里的 支石墓群에서는 數十基의 支石墓中에 北方式이 섞여 있었는데 또 正方山 서쪽기슭에서 발견된 支石墓는 대부분이 南方式으로 一〇 m 距離 안에 몰려 있는데 비해, 北方式은 이들로부터 二〇 m나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 있다⑯. 이런 現狀은 江西郡 石泉山에서도 볼 수 있는데 數百의 南方式支石墓中 北方式은 二基가 確認되었는데 山中腹의 斜面에 따로 떨어져 位置하고 있다⑰.

北方式支石墓는 위에 든 몇 곳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群中에서 主流를 이루고 있는 南方式支石墓群에서 떨어져 位置하고 있는 것이 共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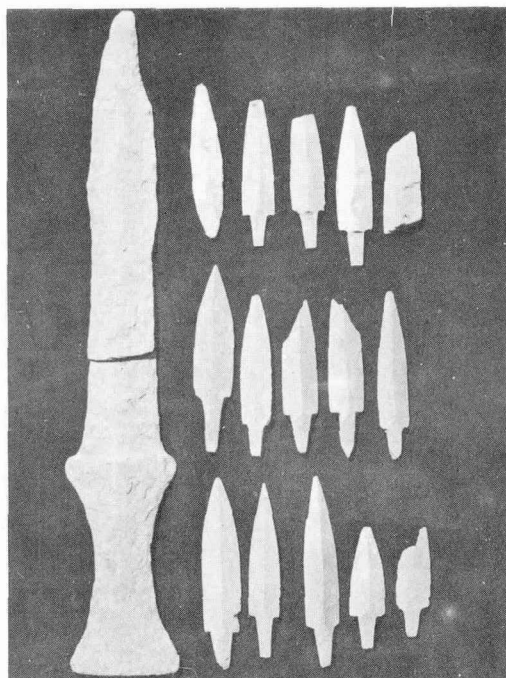


圖 2 新基里 支石墓出土 石劍·石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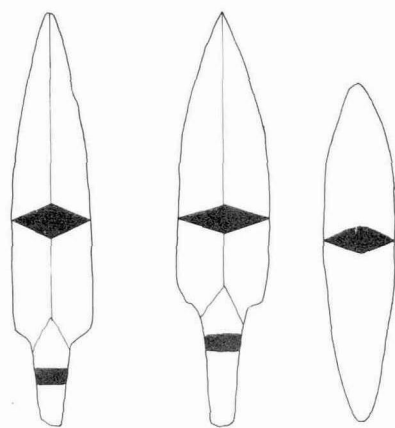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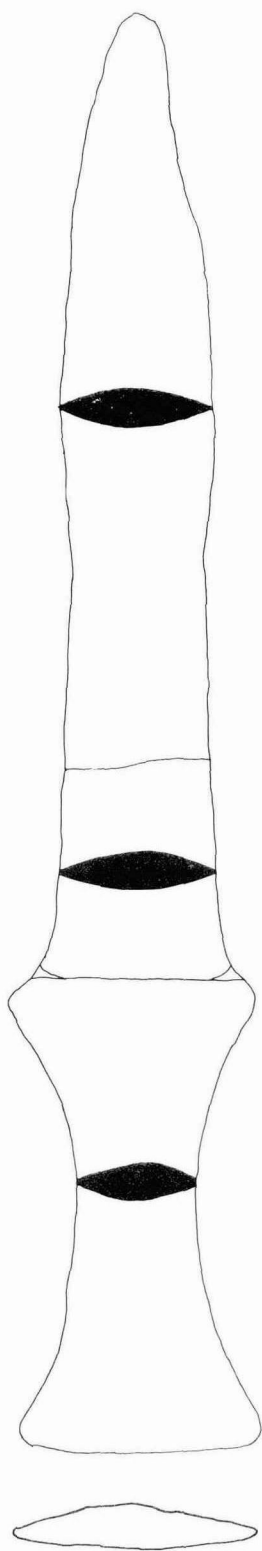


圖 3 石劍·石鏃 實測圖

點인데 新基里에서 이와 같은 點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卽 北方式은 A·B號가 部落의 西北쪽에 分布되어 있고, 南方式으로 推測되는 C號가 A·B號의 南쪽인 部落 中心쪽에 있으며 여기서 부터 展開散在하고 있는 支石墓들은 모두가 地表에 바로 올려져 있거나 上石의 下部가 地下에 묻혀 있는 것은 南方式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勿論 이 가운데에 今番 調査한 南方式도 섞여 있다.

이처럼 北方式과 南方式이 한 墓群에 混在할 경우 主流는 南方式이며 北方式的 所在 位置가 別途로 占地되는 것은 造營集團內에서 血緣의 差異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가령 北方式을 고집하는 集團과 南方式을 고집하는 集團間的 婚姻關係라든지 또는 잠시 流行時期의 差異에서 오는 것인지? 이 點은 出土遺物을 相互 比較함으로써 答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두 形式이 混在하는 곳의 支石墓에서는 充分한 遺物을 發見한 일이 없다. 新基里에서는 南方式에서만 出土되었고 梅山里와 正方山 또는 石泉山에서도 다 같이 한 形式에서만 遺物이 出土되었다. 아 물론 이 問題는 時間을 더 두고 充分한 資料를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四、出土遺物

磨製石劍은 灰黑色의 粘板岩製로 길이 三二·五cm、柄部길이 一〇·五cm、劍身幅三·四cm이며 中間이 切斷되어 兩分되었다. 斷面은 稜形이고 鐔과 柄頭의 斗出은 심하지 않으며 柄部는 弧線을 하고 있어 充分한 길이와 함께 實用에 適合하다. 形式으로 보면 有光敎一敎授의 所謂 BⅡ式이며 錦江流域의 一般形에 속한다.

石鏃의 一點은 柳葉形이고 其他 十四點은 莖部斷面이 直四角形이고, 稜角이 分明하며 鏃身幅은 넓지도 細長하지도 않은 中間形을 하고 있고 鋒部는 銳利한 편이다. 材料는 灰黑色의 片岩製이다. 크기는 가장 큰 것이 九·三cm의 길이이고 작은 것은 六·二cm 길이이다.

五、맺음말

偶然한 埋藏物의 申告로 新基里支石墓群의 一部를 밝혀져 되었다. 今番 調査한 것은 石棺構造를 가진 南方式이었는데 前에 二次에 걸쳐 調査한 것은 모두 北方式이었다. 前後 三次에 걸친 調査의 結果로 北方式과 南方式이 混在할 경우 主流는 南方式에 있고 存在形式에 있어서 서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北方式은 群域에서 변두리 또는 약간 떨어진 別途의 장소에 分布하고 있음을 梅山里、正方山、石泉山 등의 例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理由는 아직 알 수 없으나 支石墓造營集團의 血緣差異나 流行時期의 早晚에서 오는 것인지 分明치 않다. 그리고 여기서 出土된 磨製石劍과 石鏃은 新基里支石墓群에서는 처음 發見한 遺物인데 扶餘地方의 것들과 比較하여 같은 形式에 屬하는 것으로 넓게 錦江流域文化圈에 包含될 수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註〉

- ① 金載元, 尹武炳〈韓國支石墓研究〉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六冊 一九六七
 - ② 〈八堂·昭陽泮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文公部文化財管理局 一九七四、一一一
 - ③ 註二와 同
 - ④ 〈榮山水沒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書〉全羅南道 一九七六、一〇
 - ⑤ 註二의 P、四〇 P、四二
 - ⑥ 金元龍「論山陽村面の 支石墓群」考古美術 一一三 考古美術同人會 一九六〇、三
 - ⑦ 金載元、尹武炳 前揭書 P、一三六
 - ⑧ 金載元、尹武炳 前揭書 P、一八一
 - ⑨ 三上次男〈滿鮮原始墳墓の研究〉P、三二四 圖六八、一九六一
 - ⑩ 三上 前揭書 P、二八三
- 赤峰紅山後의 石棺墓에서는 土器는 男·女·小兒의 各墓에 共通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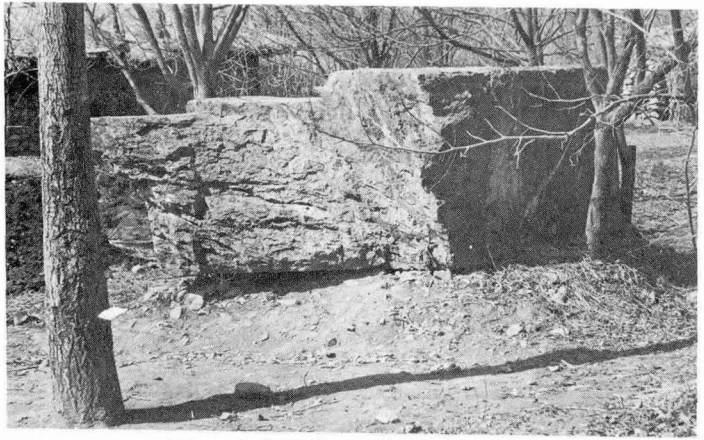


圖 4 新基里的 새로 發見된 支石墓



圖 5 支石墓의 露出狀態(左壁石 `右蓋石)



圖 6 新基里 支石墓 下部構造(石棺)

玉類는 女性과 小兒의 墓에 副葬되어 있으나 石鏃은 男性墓에만 있었다. 이
러한 現狀은 吉林地方에서도 찾을 수 있다.

① 金載元, 尹武炳 前掲書 P, 三 P P, 一六八—一六九

② 註 7 과 同

③ 尹武炳博士님은 이 支石墓가 六·二五時 防空壕로 使用된 事實 때문에 形
式에 對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④ 金載元, 尹武炳 前掲書 P P, 一四八—一四九

⑤ 황기덕, 「황해북도 황주군 진동 고인돌발굴보고」 문화유산 一九六一—三
김기영 「영안남도 개천군 목방리 고인돌발굴중간보고」 문화유산 一九六一—二

전주농 「강서군 태성저수지 내부 유적의 정리」 문화유산 一九六一—三

⑥ 황기덕, 前掲論文

⑦ 전주농, 前掲論文

(一九八〇·八·一五 嶺南大學校文理大 教授)